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 IFEZ 송도서 공식 개소

법, 경제, 사회, 문화 등 스마트시티 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스탠퍼드연구소(SCIGC: Stanford Center at the Incheon Global Campus)가 공식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3일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마이클 레펙(Michael Lepech) SCIGC 총괄 책임자(스탠퍼드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스마트시티 관계자, 스탠퍼드대학교 한국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총장 마크 테시에 라빈(Marc Tessier Lavigne)은 영상 메시지로 연구소 개소를 축하했다.

10여명의 스마트 시티 관련 석·박사가 상주하는 SCIGC는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학제 간 연구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경쟁력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SCIGC는 실리콘 밸리와 한국을 연결하는 협력의 허브 및 경제자유구역 내 앵커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 GS칼텍스, 현대자동차,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IFEZ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리콘 밸리 내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모델을 IFEZ에 도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축하하고 있다. 2 마이클 레펙 교수가 스탠퍼드 연구소 개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연구 모델의 상용화 및 전 세계 보급, 한·미 연구 보완연구 등 공동연구, 한국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연구용역 기회 창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CIGC 개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IFEZ에 우수한 외국 대학의 연구소 유치로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2019년 12월 스탠퍼드대학교와 우리나라에 스탠퍼드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라빈 스탠퍼드대 총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스탠퍼드 대학과 한국 정부, 동문, 기업과 협업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개회사에서 “SCIGC가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시티이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 도시인 인천 송도에 개소함으로써 송도의 도전과 혁신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